

고흥군, 2026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4년 연속 지방세정 우수기관 선정



고흥군 재무과 관계 공무원들이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을 기념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5일 2026년 전라남도가 실시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흥군은 지난 2023년 장려상 수상 이후 올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지방세정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라남도 지방세정 종합평가는 자부재원 확충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도내 시군의 지방세정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수 확충, 세외수입 징수 및 운영, 지방세정 운영 등 3개 분야 35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고흥군은 특히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세정 운영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흥군은 그동안 정확한 세원 관리와 체계적인 징수 활동,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무행정 추진 등에 힘썼다. 또한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통해 군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왔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 북내면, 풍년 농사 기원 '씨레시집' 개최

보성군은 최근 북내면 주관으로 북내면문화관에서 면민 100여 명이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씨레시집'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모내기와 발작물 파종 등 농번기를 마친 면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풍년을 기원하며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씨레시집'은 모내기를 마친 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씨레를 깨끗이 씻어 보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통 농경의례로, 한해 농사의 중요한 고비를 넘긴 것을 자축하고 벼가 무탈하게 자라 풍년을 이루길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북내면은 매년 6월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씨레시집 행사를 개최해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음식을 나누며 농경문화를 계승하는 데 힘쓰고 있다. 보성군 북내면은 면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경의례 '씨레시집' 행사를 열고 풍년을 기원하며 화합을 다졌다.

/강종수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98.4% 지급...내달 3일 마감

해남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마감에 다음달 3일로 다가옴에 따라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 6월 22일 기준 해남군내 신청대상자 5만 4,597명 중 98.4%에 해당하는 5만 3,736명에게 총 153억원이 지급됐다. 군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오는 7월 3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등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해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개별통보된다. 다만, 이의신청 마감일인 7월 17일은 제헌절(공휴일)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문 신청은 7월 16일까지 가능하다.

/윤보현 기자

진도군, 행락철 맞아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 전개

진도군은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 하천 주변 등 환경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클린-업 데이(Clean-UP Day)'를 진행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군민중심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의 하나이며, 군민과 기관사회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해 읍면 시가지, 주요 도로변, 하천과 하구를 중심으로 쌓여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특히, 행락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해 '청정 진도'의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진도군은 매월 셋째 주마다 시행하는 '군민중심 생활환경 가꾸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기별로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기울인다.

/이재평 기자

장흥군, 6·25전쟁 영웅들의 헌신 되새겨

장흥군은 25일 장흥군민회관에서 '6·25전쟁 제76주년 상기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회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상기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화랑무공훈장 전수식, 유공자 표창, 격려사 순으로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호국영령과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전쟁 당시 공적을 세우고도 훈장을 받지 못했던 고(故) 조항래 님과 고(故) 김창흠 님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이 열려 의미를 더했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읍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순항



완도군 고금면 소재지에 구축된 LPG 저장 탱크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지리적 특성상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설치하여 각 가정으로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난방·취사에 사용하는 연료를 기존 연료보다 약 30~40%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군은 지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76억 원을 투입하여 고금면 소재지 일원 4개 마을, 393세대 대상 사업 추진을 추진했다. 올해는 군외면 소재지의 158세대 대상으로 3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50%로 10월 준공 예정을 앞두고 있다. 2027년부터는 약산면과 신지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을 통해 연료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LPG 배관망 구축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이다"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군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연료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향후 사업을 확대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약산면과 신지면

/이문수 기자

